

합동전화

2018년 2월 24일

일치의 챔피언

1. 모든 경계선을 넘어 -2018년 젠페스트를 향한 카운터 다운

전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 어른, 아이들,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가 젠페스트를 향해 펼친 수많은 활동과 경험들. www.y4uw.org 에서 볼수 있음

2. 시작 인사

3. 시리아 - (AMU)의 스테파노 코마치와의 인터뷰와 엠마우스, 헤수스의 인사

알레포의 마리아 도 세우 코스타와 전화 통화.

4. 포르투갈 - RAISE 프로젝트: 실업퇴치를 위해 일하기

포르투갈에서 국제 'AMU'협회와 'EoC'가 제공한 실업의 비극에 대한 구체적인 한 가지 해결책.

5. 콜롬비아 - 진실과 화해

이태리에 살고 있는 콜롬비아 인 아드리아나 아벨라네다의 여행 일기는, 우리를 그 녀의 조국과 수천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평화의 과정을 살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로 데려감.

6. 브라질- 우울한 기쁨: 핀톨의 스토리

급작스러운 병으로 중단됐던 한 배우의 경력. 하느님의 손에서 다시 빛어진 한 삶.

7. 지스 칼리아리와 그에게 우선 적인 것

끼아라 루빅의 초창기 친구가 97 세를 마감으로 우리를 떠남. 마지막 기간의 그의풍요로운 경험은, 서로간의 사랑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현존 하시는 예수님, 단 한가지 생각으로 정수됨.

8. 이탈리아- 로마 아모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가족되기

디노 임팔리아초의 이해타산 없는 한 행위는 촘촘히 짜여지는 그물의 첫 매듭이 되어, 투스콜라라와 로마의 다른 여러 곳에서 다른 여러 새로운 형제들을 향한 상호적 사랑과 연대감의 거처가 됨.

9. 끼아라 루빅: 일치의 챔피언

한 그룹의 사제들에게 한 끼아라의 인사에서 - 로카디파파, 1981년 12월 1일.

10. 엠마우스 인사와 끝 인사

1. 모든 경계선을 넘어 – 2018 년 젠페스트를 향한 카운터 다운

[영어]

(여)

이봐요 나는 여기,

벽 뒤에 있어요……

나는 충분히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당신은 나를 보기 원하지 않아요…

경계선들은 우리를 갈라 놓아요.

민족.

문화.

나라들을 갈라 놓고

너를 코너로 몰아가요……

네 도시,

네 자신,

네 마음의 가장자리로 몰아가서

두려움과 공허감으로 네 눈을 멀게 해요.

하지만……내가 만일…… 위험을 감수하고 경계선들을 뛰어 넘어……

내 관점을 바꾼다면?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호흡하며,

다리를 파괴하는 대신 건설한다면……?

전 세계가 저기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고, 살고,

호흡하기 위해.

단지 함께 할 때만

좀 더 일치된 세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더 일치된 세계는

오로지 함께만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악 과 박수)

안토넬라: 합동전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합동전화 때 젠페스트로 끝맺었는데 오늘은 젠페스트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젠페스트는 오는 7월 마닐라에서 있을 포콜라레 운동 젊은이들의 국제적 만남의 약속이며,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개최될 것입니다.

안토넬라: 마지막 합동전화에서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는 모두 이 행사에 기여하라고 초대했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어디 있지요? 아르헨티나의 마르타와 필리핀의 이지노를 초대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준비는 얼마나 진전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이 제안에 대한 반향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데, 어때요?

마르타: 그럼요. 엠마우스의 초대에 대한 답은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도달하는 기여에 대해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 나가기로 해요!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구역 공동체에서는 젠페스트 기금 모금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일치를 위한 젊은이들이 지역 젠스트에 초대하기 위해 학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녀 4 젠들이 젠페스트를 위해 카니발 파티 기간 동안 베히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근교의 4 젠들은 그리스 젊은이들의 여행경비를 위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공동체는 자선 저녁 식사를 조직했고, 텍사스에서는 이번 달 ‘슈퍼 볼 경기’ 기간 동안 ‘케이크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뉴델리에서 뭄바이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스리랑카와 네팔에서도 젠페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쿠바에서도 젠페스트가 열릴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젊은이들이 빙고 게임과 스포츠 경기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체스코: 이지노, 필리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이지노: 바로 이 주간 동안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과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위해 마닐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악단과 안무 팀도 무대연출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운동 전체가 젊은이들을 초대하고 사방에 젠페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주교회의, 크리스천 일치 주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고, 다른 많은 만남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토넬라: 대단하군요! 아무튼 전 대륙이 끓어 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리오데 자네이로의 마리아나와 연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나 연결됐나요?

마리아나 마르틴스: (예, 차오!)

안토넬라: (차오!)

여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군요, 마리아나, 브라질에서는 쟈페스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마리아나 마르틴스: 우리는 쟈페스트에 참석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6 월 축제'와 전채 요리와 스낵 그리고 노래방으로 'Botekokê'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9 월 합동전화 후에 모두의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기부금이 도착하여 6 월까지 영화 상영, 도심 가이드 관광, 또 한 번의 'Botekokê'와 바자회 등 많은 활동 프로그램이 짜여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젊은이가 마닐라 축제에 참가할 경비가 모였는데, 나머지는 다른 젊은이들이 상 바울로의 지네타 소도시에서 열릴 우리 쟈페스트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안토넬라: 감사합니다 마리아나,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쟈페스트 참가신청 기간이 끝나가니 서두르기 바랍니다! 쟈페스트에 참가하고자 하거나 정보를 좀 더 원하는 사람은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사이트와 우리 소셜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마르타, 이지노 감사합니다! (박수)

2. 시작 인사

안토넬라 비앙코: 그런데 우리 소개를 하지 않았네요!

프란체스코 토르토렐라: 소개 드립니다.

안토넬라: 시작하세요!

프란체스코: 저는 프란체스코이고, 이태리 남부의 매우 아름다운 도시 바리에서 왔습니다. 안나와 결혼해서 마리아, 마르코 그리고 마르타, 세 자녀를 둔 행복한 아빠입니다. 저는 일치를 위한 활동 국제 협력 기구인 'AMU'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고, 제 부인 안나는 새가정을 위한 활동인 'AFN'의 국제 입양 부서에서 일합니다. 우리 둘다 사회 봉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안토넬라: 저는 안토넬라인데, 저도 바리 사람이지만 15 년간 여기 로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리인데, 이태리 남부 청소년 형사과에서 교육을 맡게 되면서 어려서부터 마음 속으로 원했던 것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일치된 세계의 이상을 교도소의 철장 너머로도 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란체스코: 보다시피 매년 합동전화는 바뀝니다. 사회자가 바뀌고, 강당이 바뀝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온 수녀님들과 봉헌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차오, 거기 계시군요! (박수)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모였던 아바학교 임원 그룹이 있습니다. (박수) 아담 비엘라 교수님께 특별한 인사를 드리는데, 끼아라 루빅에게 첫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루블린 대학의 교수이십니다. (박수)

안토벨라: 그리고 카스텔리 로마니 지역의 청소년 들에게도 인사합니다!

만일 인사, 메시지, 인상 등을 보내고 싶으면 우리 이메일, 페이스 북, 혹은 핫잡 +39 342 873 0175 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시리아

프란체스코: 어제 우리는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선의를 지닌 모든 이에게 청하신바대로, 특별히 콩고와 남 수단 국민들을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와 단식의 특별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즉시 분쟁과 폭력의 사태를 살고 있는 시리아와 다른 국민들에게로도 향합니다.

오늘 여기 스테파노 코마치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 ‘AMU’ 회장으로 2012 년부터 (새가정을 위한 활동) ‘AFN’ 과 함께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들을 통해) 시리아 국민들을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와는 최근에 한 조금은 특별한 여행에 대해 나눴습니다. 몇 주전에 시리아에 함께 하는 프로젝트와 공동체를 방문했지요?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스테파노 코마치, 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

고통받았지만, 생동하는 나라를 보았하고 하겠습니까. 나는 무스타파와 그의 부인 데니스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무슬림이고 부인 데니스는 크리스천이고 딸 나야가 있습니다. 급격히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 급히 집을 떠나야했는데, 결국 집은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정교한 전통 아랍 스타일로 하부 구조와 장식물 작업장에서 일했는데, 그 모든 것이 파괴되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보았습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침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과 능력을 피난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아름다움과 문화를 통해 죽음과 증오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 것은 또한 이 청소년들에게 나라를 재건할 때 일할 가능성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로 2 만 명이 일하던 첫 도시 중 하나인 알레포 시의 시장에서 직물 가게를 가지고 있던 술선자 잘랄과도 함께 가게로 가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마치 꿈이라도 꾸듯이 거기 남아있던 천 샘플들을 만져 보고, 오래된 가게 장부를 들쳐 보았습니다. 지금 잘랄은 시리아에서 ‘AMU’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작은 그룹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외국으로 피난 갔기 때문에 학교들에는 교사들이 없고, 교실은 학생들이 넘쳐나서 우리 공동체는 방과 후 학습을 시작했는데, 사랑과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전쟁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돕기 위한 활동들도 많은데, 무엇보다 시리아에 심각한 문제가 된 건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알레포, 하마, 홈스, 카파르나움, 다마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스테파노, 시리아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스테파노: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약 94 만 유로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보여 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는 경제적 도움이 좀 줄어든 것을 보았는데 어쩌면 요즈음을 제외하고 시리아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필요는 많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이 활동들을 좀 축소해야 했는데 도움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시리아 인들 곁에 있고자 합니다.

프란체스코: 그러면 이 합동전화를 빌어, 여러분 각자가 시리아 인들을 돕기위한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청합니다. 'AMU'와 'AFN'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인들을 위한 여러분의 지지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액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스테파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것과, 계속하게 될 것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안토넬라: 스테파노가 우리에게 기억시켜 준 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지금 시리아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해 중동에 살고 있는 브라질 친구 '마리아 도 세우'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인이라고 정정 해 주네요! '마리아 도 세우' 미안합니다. 연결됐나요? 들리나요?

마리아 도 세우 코스타: (웃음) 네, 네 들려요, 차오!

안토넬라: 좋아요! 차오 마리아 도 세우!

마리아 도 세우 코스타: (Ciao a tutti, ciao!)

안토넬라: 시리아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얘기 좀 해 주겠어요?

마리아 도 세우 코스타: 우리는 최근에 상황이 조금 호전된 알레포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기 위해 시리아 전역의 우리 식구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자 하는데, 특별히 상황이 아주 나빠진 다마스코 식구들과 연결되고있고자 해요. 이 폭력의 십자가에 지치고, 두려움을 느끼며, 다음 순간에 무슨일이 닥칠지 모르는채 살고 있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지쳐있어요…… 피해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의 이동을 피하기 위해 여러 직장과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긴장감은 극도에 달했어요.

그럼에도 삶은 계속돼요. 우리 운동 공동체 사람들은 도착하는 기도와 일치의 메시지에 무척 고마워하는데, 많은 이들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에요. 다마스코에서는 모두 함께 하도록 초청하며 타임-아웃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여러 종교와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어제 하루 평화를 위해 금식과 기도할 것을 청하신 것이 참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실지로 이 메시지는 모두가

일치되어 하늘로부터 평화의 선물을 쟁취하기 위해 이 세계적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전달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감사해요. 하느님께서 그 순간을 앞당겨 주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엠마우스: 엠마우스예요. 당연히 계속 함께 살고 기도할 것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네가 모두에게, 특별히 다마스코에서 참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청해요. 그들이 살고, 바치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는데 필요하며, ‘우트 옴네스’를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최 전선에 있음을 느끼고, 우리는 단 하나이며, 그들이 우리이고, 우리가 그들이며, 우리가 여러분임을 느끼기 바라요. 예수스 바꿔 줄게요.

마리아 도 세우: (감사합니다!)

엠마우스: (차오, 차오 세우, 여러분)

마리아 도 세우: (Grazie, grazie.)

헤수스: 차오 마리아, 나도 여러분의 현존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하느님과 영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충성심에 감사해요. 최근에 우리 모두가 조금 여우로워졌을 때 고우타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이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우트 옴네스’의 최전선에 여러분과 거기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바라요.

마리아 도 세우: 헤수스, 엠마우스, 여러분 모두 에게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세계에 퍼져있는 커다란 한 가족임을 느껴요. 정말 감사해요!

엠마우스: (Grazie!)

안토넬라: (Grazie, ciao!)

마리아 도 세우: (Ciao!) (박수)

4. 포르투갈 - RAISE 프로젝트: 실업퇴치를 위해 일하기

프란체스코: 그 처럼 극적인 충돌사항을 살지 않는 나라들에도 어려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 하나는 직장, 희망과 미래가 없는 실업 문제입니다.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로 준비와 용기를 갖고 대면해야 합니다. 바로 포르투갈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 함께 봅시다.

[포르투갈어]

(음악)

프란시스코 마이아, 포르투갈 AMU 회장 (남)

이 프로젝트는 포르투갈의 사정이 어려워 많은 가정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시기였던 2015년에 태어났습니다. 많은 이가 무직이었고 이 때문에 개인적, 가정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 취업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회를 총동원할, '상호적인 도움의 네트워크'가 필요했습니다.

마르가리다 로드리게스, RAISE 프로젝트 사회 복지사 (여):

RAISE 는, 영어로 '들어올린다'는 의미로 우리 프로젝트의 약어입니다. 사회 통합과 기업가 정신을 위한 대안으로, 개개인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노동 시장에서 개인적 그리고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자영업을 창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

공립 및 사립 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실직자들에게 심리적 지원, 기술 개발, 노동 시장에의 복귀 등의 보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EoC'와 'AMU'의 도움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우리는 50 명을 동반해 주었는데, 현재 21 명이 노동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페르난도 마우리치오, 벌목 및 목재 상 (남):

일자리가 적어 나도 무직이었고 아내도 직업이 없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단계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양식 살 돈, 여러 가지 필요한 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착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베로니카 벤토, 유기 농업 사업가 (여):

그 시기에, 나는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느꼈는데, 직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했습니다.

세리아 파리아, 노인 휴양 시설 보조사 (여):

저는 3 년이상 거의 4 년간 무직이었습니다. 제게 일을 주지 않았으므로 저는 힘을 잃었고, 슬프고, 자포자기 했습니다.

페르난도 마우리치오 (남):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프로젝트는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나는 일하기 시작했고 터널 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M. C., 사법 경찰 경위 (여):

무엇보다 먼저 제가 국가 안보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당면했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제가 청했던 일자리에 대해 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감이었습니다.

베로니카 벤토 (여):

개인적인 동반은 무엇보다 먼저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자금조달 시, 그리고 실행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어려움, 의문 등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M. C. (여):

저는 전문적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안들을 검토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도왔는데, 그 것이 나로 하여금 더 성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세리아 파리아 (여):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 'AMU'가 해 준 것에 대해 무슨 말로 감사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페르난도 마우리치오 (남): 제가 그냥 손 놓고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피레스, Abrigada 와 Cabanas de Torres 회장 (남):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AMU'와의 협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인데 이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마르가리다 로드리게스 (여):

우리에게는 포르투갈 시인 '세바츠사오 다 가마'가 있는데, 그의 시 한 수로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했는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목소리)

감격하여 말을 잊은 채.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없을까?
결실이 있건 없건,
우리는 꿈을 위해 나아간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어쩌면 갖지 못할 것에 대한
희망으로 충분하다.
같은 기쁨
마음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매일 매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없을까?

출발하자. 가자. 되자.

(음악 과 박수)

프란체스코: 프란치스코, 말가리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정말 잘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5. 콜롬비아 – 진실과 화해

안토넬라: 그럼 이제, 포르투갈에서 라틴아메리카로 정확히 말해 콜롬비아로 갑시다. 긴 내전을 뒤로하고…… 벗어나, 이제 어려운 화해의 과정을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함께 합동전화 제작팀의 아드리아나 아벨라네다의 여행 일기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스페인어]

(풍경)

아드리아나: 나는 콜롬비아로 가고 있다. 우리 나라를 떠난 지 어언 23 년이다. 우리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팔손 잔치를 하고 나의 뿌리와 과거를 되찾으려 가고 있다. (음악)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얘기에 의하면, 콜롬비아는 쉼 없이 전쟁을 치렀다. 모든 콜롬비아인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화에 도달하는 과정은 아직도 매우 복잡하다.

진실과 화해 (여행 일기)

2016 년 11 월 24 일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혁명군이 약 50 년간의 내전을 끝내기 위해 평화 협정에 싸인을 했다. 내전으로 22 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6 백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화해의 길은 가파르고 험난하기만 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회정의에 대한 갈망을 느꼈다. 그 때문에 내가 보고타에서 포콜라레 운동을 알게 되기 전까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게릴라 전에 동의했지만, 운동을 만나 이후로는 조국, 가정, 직업을 버리고, 내 삶을 평화와 보편적 형제애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반면에 나의 형제와 어머니는 '90 년대에 많은 다른 콜롬비아인들이 그랬듯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국을 떠났다.

여행하는 동안 나는, 나처럼 일치의 영성을 알고 난 후 삶이 변화된 몇 사람을 만나보고자 한다. 엘킨 신부는 젊은 시절에 한 게릴라 단원이었다.

엘킨 오소리오, 산 마르코스 데 레온 (칼리) 본당 신부: (...) 나는 극심한 사회적 불의가 있는 한 본당에 도착하여 조금씩 조금씩,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농부들을 돕고,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등 나의 이념과 가까운 민족해방군의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영신적인 면”은 식어갔고 나는 사제라는 지위를 농민들을 정치화 하는데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민족해방군 그룹에서 절도, 사기, 강간 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절대로 내가 찾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리아나: 엘킨 신부의 스토리는 사회 정의의 이상에 동조했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때문에 실망하게 된 여러 사제와 수도자들의 스토리 중 하나이다. 농부들의 학대들을 고발하다 피살 당한 33 살의 호르게 루이스 마쵸와 같은 이들도 많은데, 그는 인도주의적인 활동 중 아트라토 강에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피살됐다.

“인생은 설움을 주지 않는다” 라는 책은 게릴라군과 정부군 사이에 관한 이야기로 처음에는 서로 싸웠지만 어느 순간 무기를 내려 놓기로 결정한 내용이다. 조약의 항목들 중 하나는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의 정치 참여였다. 게릴라였던 올란도를 만나는데, 그는 전투 참가자들의 시민 사회복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친구들의 죽음과 투옥 그리고 형제가 정부군으로부터 피살당한 경험을 했다. 그에게 복수할 것을 권했지만 그의 결정은 다른 것이었다……”

올란도 카르도초 발데라마, 농민 공업 경제 협회 (비야 레리카 - 톨 리마): 나는 ‘노’라고 답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 나의 내기는 온전히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용서의 예술을 배우는 것인데 이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무기나 전쟁은 결코 삶을 변화시킬수 있는 선택조건이 아닙니다. 진실로 변화의 길은 다른 것임을 발견하며, 이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권력의 힘도 필요치 않고 건설하기 더 어려운 겸손의 힘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풍경)

아드리아나: 대부분이 농촌지인 콜롬비아 남부로 내려갔다. 콜롬비아의 농부들은 추방되거나 코카 제배로 착취를 당하는 등, 이 투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코카는 혈전의 이유였고 수십년간 우익과 좌익 무장단체들의 자금줄이었다. 변호사인 엘시는 여러 해 동안 토지 재분배와 농민 양성과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일했다.

엘시 페루호, 지역 농수산물 감독 (바랑카 베르메하): 대부분이 문맹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만납니다. 그들의 상황에 귀 기울이는 다른이들도 있지만, 그들이 정부군에 속하거나 혹은 불법 제배 허용 금지를 원하지 않는 게릴라 군에 속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 길에서 코카 제배를 하는 “라스파치네스”를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젊은이들로 몇몇은 18 살을 넘지 않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그 뿐입니다. (...)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단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참으로 고통 받았던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드리아나: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최근의 콜롬비아 방문 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이 투쟁의 피해자이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 폭력의 파도로 고통을 당했다. 내 친구 디아나는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두 명의 사촌을 잃었다.

디아나 파르판, 국가 수석 대변인 (보고타): 2002 년도에 국회의원들로부터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선거 운동에서 손을 뗄 것을 종용 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풀어 주기 만을 바랐습니다. 이틀 후에 놀랍게도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포콜라레를 알게 된 것은 큰 선물로서, 내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감정이 복바져 잠시 침묵] 평화는 없습니다.

아드리아나: 1992년 3월 27일에 보고타의 한 국제 기구 앞에 폭격이 있었다. 나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매일 그 곳을 지나곤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졌다. 단지 굉음과 연기 그리고 가까운 빌딩에서 떨어지던 유리 조각들만 기억난다. 그 당시 나는 마약밀매와 테러범죄를 전담하던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은 지역 평화위원회원이고, 그 당시 나의 상관이던 미겔을 찾아 간다. 이 평화협정의 중요 사안은, 이 갈등의 모든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미겔 데 니노, 산도발-지역평화 건설 위원회(툰하): 참된 진심, 성의의 모범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과 정리의 원칙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보복적인 정의가 아니라 보상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의 진리를 통해서인데,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에 이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기보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택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이들이 이를 원하지 않고 군인들은 더더욱 원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며 중점적인 요소인 진실 안에서 화해하는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 빌라 비첸시오, 2017년 9월 8일: 진실은 정의와 자비의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진실은 복수로 이끌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화해와 용서로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콜롬비아인들이여, 용서를 청하고 용서해 주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해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드리아나: 화해를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다. 이번에 우리는, 그 동안 관계가 쉽지 않았고 갈라선 후로는 더 금이 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콜롬비아에 되돌아 가기로 했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증오를 없앨 때다. 화해는 우리 각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노래와 박수)

안토벨라: 화해는 우리 각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콜롬비아 메델린의 레이디와 연결되어야 할텐데, 레이디 연결됐나요?

레이디: (Ciao, eccoci.)

안토벨라: 보이나요…… 아 있군요, 차오! 레이디, 이 화해 과정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레이디 바르가스: 국가적으로 중요한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6년간 내전과 관련해 자행됐던 살인의 80%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특히 마약 밀매로 인한 사회 지도 계층에 대한 폭력과 부패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하고자 하는 새로운 바람이 있고, 몇몇은 피해자 보상을 위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모든 학교에서 교육해야 할

내용을 준비하는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도전은 사회구조 재건을 포함하는 정치문화를 건설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안토넬라: 감사합니다 레이디, 이 일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Ciao!)

레이디: 기억하겠습니다.(Ciao!) (박수)

6. 브라질- 우울한 기쁨: 핀톨의 스토리

프란체스코: 어떤 때는 상황이 우리 삶을 갑자기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통을 직면하면서, 브라질 상파울루의 배우 핀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음악과 풍경)

호세 핀톨: 저는 계통 지리학자로, 거의 일생 동안 지리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제가 아마 여덟, 아홉 살이었을 때 저를 점토와 테라코타로 조형예술품을 만드는 ‘알토 도 모라’에 데려갔습니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한 예술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문 뒤 편에서 인형 머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인형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단지 손으로 작업하고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조각품이 완전하다고 느꼈을 때, 그는 잘 살펴본 후에 조각품을 벽으로 던져 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형태를 잡기가 더 용이해진 그 점토를 가지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내게 있어 예술은 항상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술에 더 전념하기 위해 지리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작업, 공연, 여행, 프로젝트 등으로 꺾 찬 시기에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가 어렵고, 심한 가려움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길랑 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증후군은 전신을 마비시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눈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연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앗아간다는 생각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제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깨어났을 때는 몇 순간을 제외하고 결코 의식을 잃은 적이 없었지만, 제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외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 있다!”

비로소 한 여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의식이 있으세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의식이 있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라고 했고, 그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동작이었기 때문에 나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의식이 있으시군요!”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집중치료실에서의 마지막 시기에서야 첫 동작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 판을 준비했고 나는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쓴 글은 모기였는데, 치료실의 모기들이 여기 눈을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여기 치료실 모기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예”라는 글을 가리켰고, 의사는 “여기 안에요?” 라고 되물었고, 나는 “예”라고 했습니다.

집중치료 때 나는, 삶은 마치 하나의 천이나 그물처럼 관계들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때는 아래에 있고 어떤 때는 위에 있지만 각자가 고유의 역할을 지닌다는 것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남을까? 집중치료실에서의 경험은 제가 얘기했던 점토 인형의 스토리와 같다고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재 복구시키시기 위해, 저를 던지시어 변형하기 쉽게 만드시고, 형태를 잡으셨다고 느낍니다.

(풍경과 박수)

프란체스코: 핀틀, 우리에게 심어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 영화제작자들이 자신들의 도움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합동전화에 참여하게 돕는 프로그램인 ‘Breaking Rays’에도 감사드립니다!

7. 지스 칼리아리와 그에게 우선 적인 것

안토넬라: 지난 1 월 20 에 97 세를 마감으로 끼아라 루빅의 첫 친구들 중 한 명이며, 모두에게 지스”로 알려진, 지셀라 칼리아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스도 끼아라처럼 이태리 북부 지역의 트렌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스를 생각하면 즉시 떠오르는 형용사들은 단호하고, 근본적이며, 용기있는 이라는 것입니다. 지스는 제 2 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언니 지네타와 함께 하느님을 자신들 삶의 이상으로 삼은 끼아라와 첫 그룹의 처녀들을 만났습니다. 지네타와 함께 카푸치니 광장의 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셨고, 철회 불가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스가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지스: “당연히 지네타와 지스도 집을 떠나고 싶어했지요. 말할 필요조차 없지요. 우리는 엄마와 자매들 모두가 잠들었을 때 잠자리에 들었지만,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왔지요! 카푸치니 광장에 갔다가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던 시늉을 했지요…… 이 것이 우리가 했던 달리기들 중의 하나였어요”

안토넬라: 지스는 거의 60 년을 끼아라 곁에서 태어나고 있던 우리 운동이 형성되고, 확산되는 것, 시련과, 불확실성, 깊은 어둠의 순간들 그리고 큰 기쁨의 순간들 등의 여러 단계들을 함께 살았습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여라……” “둘이나 그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두 말씀은 그의 삶을 동반해 주었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녹화했기 때문에 수작업 수준이지만, 마지막 기간 집에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지스: 서로간의 사랑을 살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계속해서, 쉼 없이, 다른 아무 것도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분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 이 한마디로 충분해요 “돌이나 그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너, 너, 나, 너…… 우리는 깊이 일치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에요. 이해 했어요?

안토넬라: 감사합니다 지스,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지스의 이 말을 우리를 위한 유언으로 삼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8 이탈리아- 로마아모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가족되기

프란체스코: 여러분에게는, 여러 번 똑 같은 길에서 똑 같은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항상 거기 있었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그 “눈에 들어오지 않던” “버려진”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일이 없었나요?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빛을 밝히고, 눈을 뜬 사람들의 경험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곳 가까이 로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음악과 풍경)

잠 피에로 (남): 잠 피에로 입니다. ‘로마 아모르’ 활동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어려운 상황 중에,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장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을 나도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려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됐지요.

사라 (여): 저는 로마에 사는 수 백만의 일반인들 중의 한 명으로, 매일 지하철이나 기차역에 들어 가고 주위를 돌아 보면서 제외되고, 소외되어 역에서 자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 갑니다. 5년 전에 저는 이런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원 봉사 단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디노와 그가 속한 ‘로마 아모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아주 평범한 이 역이 저녁이 되면 약간의 위안을, 따뜻한 식사 한끼를, 그들을 상대해 주는 누군가를, 그들과 얘기해 주고,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 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이를 찾아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아무튼 여러 나라로부터 온 외국인들도 오지만, 연금으로는 월말까지 버티기 힘든 나이든 부인이나 여러 이질적인 상황의 이태리 사람들도 옵니다. 저는 그 전에 하지 않던 옷 분배 등의 봉사도 시작했는데, 이는 사람들과 좀 더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해 주어, 사람들을 좀 다르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나를 바라 본 후에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좀 다르게 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로?”라고 물었더니, “우리를 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잡 피에로 (남): 이 친구는 미용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아무튼 좀 단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관심도 좀 받고, 단장도 할 필요가 있어 이 친구가 시간을 내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들을 돌봐 줍시다.

디노 임팔리아초 (남): 마음 속에는 보편적인 형제애가 있으며, 그 중심은 복음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 것도 혼자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두아르도 (남): 여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가톨릭 신자, 동방교회, 이슬람교, 신앙이 없는 이등 다양한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광장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데 (불어) (남): 저는 콘데 아드 바 카르 이고, 기네아 사람입니다. 저는 사막과 지중해를 거쳐 이태리에 왔습니다. 이 여행의 스토리는 설명하기에는 매우 길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로마 아모르’ 활동에 자원 봉사하며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이 곳 투스콜라나에 왔습니다.

줄리앙 (남): 저는 수많은 자원 봉사 활동과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찾기 위해 등록을 하는 ‘이타적 로마’ 플랫폼의 컴퓨터 기술자 입니다. 6 년간 재택 정보 기술 일을 하면서 참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레네 (여): 4 년쯤 전에 나는 어느 순간 멈추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에너지를 정말 유용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 써야 하지 않나?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 사람 목소리: 우리 모두 자원 봉사자 형제 입니다……

디노 임팔리아초 (남): 제게는 네가, 그 녀가, 그가 형제이듯이, 모두가, 길거리의 가난한 이도,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가 형제입니다..

(박수)

프란체스코: “로마 아모르”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디노 임팔리아초에게 감사드립니다.

안토넬라: 디노 훌륭합니다! (박수)

프란체스코: 이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매일 맞닥뜨리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나아간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디노!

9. 끼아라 루빅: 일치의 챔피언

프란체스코: 내일 동계 올림픽이 한국에서 전 세계 선수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듣게 될 목상과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로, 끼아라 루빅이 우리 각자에게 조금 특별한 스포츠…… 모두를 향한 사랑의 챔피언이 되라고 초대합니다.

끼아라 루빅: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사이 어디선가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이 있었고, 대부분이 동유럽 국가지만,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저녁에 티비를 보게 되었는데 (...) 엘리가 "보세요 끼아라, 정말 완벽해요"하며 나를 불렀습니다.

3젠들 같은 젊은 아이들이 체조경기를 하는데, 참으로 훌륭한 공중돌기 등을, 마치 공처럼 즉시 튀어 오르며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하는 듯 했습니다. 완벽하고, 조화로운 것이 정말 세계 챔피언다웠습니다.

시청하는 동안 내면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듯 했는데, 성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느냐? (...)"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챔피언, 금 메달 감이 되어야 한지만, 지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여러 시간 훈련을 하고, 체형 유지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참고 먹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수많은 시간 훈련 할까”

“너도 현 순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 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그 분 뜻을 하는데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고, 죽으며, 앞으로 나가야 해.”

이달에는 새 말씀을 살아야 하는데, 성모님의 말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이지요?

내가 우리 운동에게 준 말은, 일치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일치를 살고, 매 순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박수)

우리는 즉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나는 천성이 그래서……”라고 할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드 살 성인의 글을 읽었는데 “악한 행위를 계속 하는데도 악인이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천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한 행위를 계속하는데도 덕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만큼, 나쁜 천성은 없다.”

선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행하고, 계속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틀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시 또 다시 시작합시다.

입에 항상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달고 삼시다.

아이구, 하느님과 일치 잃었어, 식탐을 부렸어, 그 것에 애착을 가졌어.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또 다시 시작합시다!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고, 저 순간도 지나가 버려 더 이상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챔피언이 됩시다! (박수) ¹

¹ Da un saluto ai sacerdoti - Rocca di Papa, 1 dicembre 1981.

10. 엠마우스 인사와 끝 인사

엠마우스: 끼아라가 우리를 멋진 도전으로 초대하는데, 일치의 세계 챔피언이 되라니, 굉장하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일치된 하나인 사업회, 일치의 세계 챔피언이 된다면, 끼아라의 천국 에서의 10 번째 생일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러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지요. 이제 3 월에는 끼아라의 천국 도착 10 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들, 미사들로 가득할 텐데, 우리 각자가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 사업회 총본부에서도 오는 3 월 3 일 오후에 이 기념일을 조금 특별히 축하하겠지만 세계 곳곳에서도 지낼것입니다. 미사, 행사, 회의, 모든 류의 축하행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행사에 우리 모두 어느 모로 기여하거나, 적어도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세상에, 끼아라가 10 년 후에도 자신의 사업회 안에 아직 살아있고, 현존하며, 그녀의 카리스마가 아직도 사람들을,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곳에 일치의 결실, 새로운 생명을 날아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나도 이 다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끼아라에게 선물 하기 위해, 끼아라와 함께 세상에 선물하기 위해 세상에 이를 증거하기로 합시다.

동의합니까? (박수)

안토넬라: 당연하지요, 엠마우스!

방금 전에 이 소식이 도착했는데, 끝맺음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리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휴전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인도주의 적 원조를 위해 적어도 30 일의 휴전을 가질 것을 청했다고 합니다. 희망의 표시이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박수)

프란체스코: 세계 곳곳에서 함께 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 합동전화의 실현에 기여한 모든 분들, 큰 역할을 한 통역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4 월 28 일 중앙 유럽 시각 10 시에 다음 합동전화를 약속드립니다.

안토넬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Ciao!) (박수)